

흥국생명 시즌 최다승·최다승점 쓸까

프로배구 16승·승점 46 득주...기업은행 25승·73점 기록 경신 가능성 남은 11경기서 9승 땀 최다승 타이...26일 GS칼텍스와 대결 관심 집중

프로배구 2020-2021시즌 여자부에서 독주하는 흥국생명이 시즌 최다 승점과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울지 시선이 쏠린다.

흥국생명은 4라운드 종료를 앞둔 21일 현재 시즌 16승 3패, 승점 46을 기록해 2위 GS칼텍스(12승 6패·승점 34)를 밀찌잡지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 중이다.

흥국생명은 26일 오후 7시 홈인 인천 계양체육관으로 GS칼텍스를 불러 3라운드 패배를 설욕할 참이다.

국의 생활을 접고 11년 만에 V리그로 돌아온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과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세터 다영 쌍둥이 자매를 앞세워 흥국생명은 시즌 전 예상대로 1위를 뺏기지 않고 독주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 루시야 프레스코(등록명 루시야)가 어깨 통증으로 이탈한 상황에도 김연경과 이재영 쌍포가 연일 불을 뿜어 거미군단의 승리를 쌍끌이

했다.

둘은 20일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팀 전체 공격 득점(60점)의 절반을 넘는 37점을 합작해 세트스코어 3-0 승리에 앞장섰다.

루시야의 공백에 따른 체력 부담도 이겨낸 덕분에 흥국생명은 좌초하지 않고 순항을 이어간다.

브라질 출신 새 외국인 선수 브루나 모라이스(21·등록명 브루나)도 격리에서 풀려 조만간 팀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흥국생명의 조직력은 5라운드 이후 배가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시즌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6라운드를 치른다는 가정에 따라 흥국생명의 남은 경기는 11경기다.

여자부가 6개 팀 체제로 재편된 2011-2011시즌 이래 시즌 최다 승점과 최다승은 IBK기업은행이 2012-2013시즌 달성한 73점과 25승이다.

흥국생명은 남은 11경기에서 9승을 따내면 최다

승 타이틀 이룬다.

세트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겨 승점 3을 9차례 반복하면 최다 승점 타이틀도 낸다.

압도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최다 승점과 최다승 기록을 8년 만에 경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에 GS칼텍스,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에 한 번씩 졌다. 3패 모두 선수간 불화로 잠시 전력이 흔들린 3라운드에서 당한 것이었다.

도로공사에만 0-3으로 완패했을 뿐 두 팀을 상대로는 폴세트에서 무릎을 꿇어 승점 1씩 챙겼다.

흥국생명은 4라운드에서 4연승을 질주해 3라운드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특히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이번 시즌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4연승을 거뒀고, 인삼공사에도 4연승과 함께 승점 11을 따내 독주의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가장 절기러온 상대인 GS칼텍스와는 시즌 4번째 대결에서 예상 밖 낙승을 챙긴다면 흥국생명은 챔피언결정전 직행과 신기록 수립의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



흥국생명 "분위기 좋아~" 지난 20일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득점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강진서 담금질 벨호 "올림픽 본선행 벨 울리자"

여자축구 대표팀 PO 대비 구슬땀 고강도 훈련에도 분위기 훈훈 벨 감독, 선수들과 함께 체력훈련 소통 위해 한국어 과외도 받아



강진종합운동장 내 영랑구장에서 여자A 대표팀 훈련을 지시하는 콜린 벨 감독. /연합뉴스

강진에서 담금질하고 있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과 콜린 벨(60) 감독의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다음 달 열린 중국과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에 대비해 이달 18일부터 강진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돌입했다.

2019년 10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벨 감독은 1년 3개월째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소집훈련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벨 체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활기찬 분위기다. 훈련 내내 선수들의 표정이 밝다.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잠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스치다가도 이내 활기를 되찾는다.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먼저 벨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의 노력이 있었다.

벨 감독은 늘 스태프들과 함께 '선발대'로 훈련장을 찾아 직접 훈련을 준비한다.

대표팀 관계자는 "벨 감독님은 보통 훈련 시작 1시간에서 30분 전에 선발대로 훈련 장소에 도착해 훈련 도구를 배치하는 등 꼼꼼히 훈련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훈련 중에도 벨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선수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전술 훈련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은 물론, 체력훈련도 함께한다.

선수들이 운동장을 달릴 때 코치진 역시 앞뒤에서 함께 뒀다.

벨 감독은 간혹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뒤처지면 불러 세워 천천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섬세한 지도도 잊지 않는다.

20일 오후 체력 훈련 중에는 달리기를 하던 한 선수가 힘들어하자 벨 감독이 물을 들고 뛰어

가 건네주며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다.

또 벨 감독과 로스 코치는 지난해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는 등 선수들과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신뢰를 얻고 있다.

대표팀 주장 김혜리(31·인천 현대제철)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시고 친해지기 위해 장난도 많이 치십니다. 선수들이 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찾아가면, 감독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신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덧붙였다.

벨 감독은 늘 '고강도' 훈련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선수들도 그의 스타일에 적응하고 있다.

임선주(31·인천 현대제철)는 "초반에는 고강도

훈련에 적응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몸에 배면서 즐겁게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벨호'는 다음 달 10일까지 강진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중국과의 PO 1차전은 2월 19일 오후 8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같은 달 24일 오후 8시 30분 중국 쑤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을 넘으면 한국 여자축구는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새 기록을 쓴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 법인 설립준비위원회가 21일 전남체육회관에서 헌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완식 전 도의회 의장 광주시체육회도 6월 법인화 완료

전남도체육회가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가 전남체육회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재무 회장은 "체육회 법정 법인화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다"며 "법정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의 특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스포츠로 건강한 전남도, 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한 전남체육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도 오는 6월까지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위임 5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완식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위원장

에 호선됐다.

법인설립 준비 위원회는 체육회 정관작성, 창립 총회 개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인 인가 취득 등 업무를 맡는다.

도체육회는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4월 20일까지 전남도에 법인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6월 8일까지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는 등 법인 전환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재무 회장은 "체육회 법정 법인화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다"며 "법정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의 특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스포츠로 건강한 전남도, 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한 전남체육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도 오는 6월까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켈슨, 스윙코치를 캐디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전담캐디 동생, 아내 출산 앞뒤 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44승을 자랑하는 베테랑 필 미켈슨(51·미국)이 새해 처음으로 출격하는 대회에 스윙 코치를 임시 캐디로 데리고 나온다.

21일(한국시간) PGA 투어에 따르면, 미켈슨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스윙 코치 앤드루 갯슨에게 캐디백을 맡긴다.

미켈슨의 풀타임 캐디는 친동생인 팀 미켈슨이

다. 지난 3년간 호흡을 맞춘 필-팀 미켈슨 형제는 2018년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과 2019년 AT&T 페블 비치 프로암에서 2승을 합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켈슨은 동생에게 일주일 휴가를 줬다. 팀 부부의 첫아들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갯슨 코치가 미켈슨의 캐디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도 함께 했다. 둘은 선수와 코치로 5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사이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울
2관	소울
3관	소울, 모추어리 컬렉션, 커넥트
4관	아이 엠 우먼, 도굴, 이웃사촌
5관	소울, 커넥트, 런 빛의 아버지: 파이널 판타지 XIV
6관	소울
9관	제이티 로이, 윈드 우먼 1984
7관 씨네카를	#아이엠우먼, 조제
8관 씨네카를	소울, 신과함께-인과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